

FOR IMMEDIATE RELEASE

Orthomolecular Medicine News Service, September 27, 2020

COVID-19의 비타민 C 치료: 사례보고서

by Andrew W. Saul and Doctor X

오래 전 자연 치유 분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잃을 면허가 없으니까요.” 의사들이 입을 다물게 되면, 그들은 단순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잃게 될 뿐이라는 위협을 받을 뿐입니다. 의사에 대한 주 면허위원회의 공격은 사적이며 행정적입니다. 그러한 절차는 결코 법정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배심원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닫힌 문 뒤에 존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규정 준수 도구는 사법부가 아닌, 관료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한 전문의사의 22건의 사례 보고서 시리즈를 발표하지만 그 의사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의사가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 내용들을 읽은 후, COVID-19에 대한 비타민 C의 장점에 대해서는 모두 각자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불안, 우울, 갑상선 기능 저하의 이전 병력이 있던 47세 여성은 피로, 마른 기침, 인후통, 근육통, 숨가쁨, 복통 및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11일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녀는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피로, 기침, 숨가쁨 및 식욕 등의 증상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2) 과거력 상, 겸상 적혈구성 빈혈 경향을 지녔던 63세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10일간의 피로, 마른 기침, 인후염, 발열, 근육통, 혼잡, 두통, 숨가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COVID 양성이었고 3일 연속 IV 비타민 C 7.5/ 25/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발

열과 두통은 사라졌으며, 피로, 기침, 통증 및 숨가쁨 증상들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수면 무호흡증의 병력을 가진 35세 백인 남성은 1주일간 기침, 피로, 운동시 호흡 곤란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열은 떨어졌고, 피로는 호전되었으며 기침과 호흡곤란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4) COVID 양성 판정을 받은, 과거 특이 병력이 없던 36세 백인남성은 4일 동안 마른 기침, 오한/식은땀, 숨가쁨 및 두통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3일 동안 25g의 IV 비타민 C를 투여 받았고 3일째 되던 날, 기침은 지속되었고, 후각과 미각의 저하를 느꼈으나, 그 외에 특이 호소는 없었습니다.

5) 천식, 당뇨병, 고혈압의 병력을 지닌 66세 남성은 9 일간의 피로, 기침, 전신 통증, 코막힘, 두통, 숨가쁨, 설사 및 식욕 부진으로 병원을 찾아갔으며,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간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피로, 숨가쁨, 기침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전신 통증, 코막힘, 설사 및 두통은 해소되었습니다.

6) 고혈압과 당뇨의 병력을 가진 30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은 피로, 코막힘, 기침, 숨가쁨 및 식욕 부진의 증상을 2주간 나타냈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날 COVID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 일째 되던 날, 피로와 코막힘 증상은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식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침과 숨가쁨은 크게 개선되었고 다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7) 과거 특이 병력이 없던 19 세 백인 여성이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로와 코막힘 증상을 하루 동안 보였습니다. 그녀는 3 일간의 비타민 C IV 25g을 마쳤습니다. 3 일째 가 되었을 때, 후각과 미각의 미세한 저하를 제외한 다른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8) 어렸을 때 천식과 백일해의 과거 병력을 앓았던 19 세 백인 남성은 COVID 검사에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그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 4 ~ 5일 동안, 피로, 마른 기침, 인후통, 근육통, 코막힘,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식욕 부진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비타민 C IV 25를 투여 받았습니다. 3 일째 날, 증상은 사라졌으며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9) 1개월 동안 발열, 피로, 기침, 몸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온, 당뇨병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병력을 지닌 67세 백인 남성은, 병원 방문 1 주일 전에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이 지나자, 발열, 두통, 몸살 증상은 해소되었고 피로와 기침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0) 2 형 당뇨병의 과거 병력을 보여온 60 세 남성이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일 주일 동안 발열, 피로, 마른 기침, 근육통, 코막힘, 두통, 숨가쁨, 복통 및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또한 오한과 식은 땀을 흘렸고 미각과 후각의 소실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이 지나자, 기침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두통은 사라졌으며, 숨가쁨 증상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메스꺼움도 호전되었고 오한과 식은 땀은 사라졌으며 미각과 후각 기

능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11)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59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은 COVID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3주 동안 증상을 보여왔으며, 증상으로는 발열, 피로, 두통, 숨가쁨, 오한 그리고 땀 흘림 등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g을 투여 받았습니다. 3일이 지나자, 열은 떨어졌고, 피로와 숨가쁨, 기침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12)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던 34세 백인 여성은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판정을 받기 전 4일 간 요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IV 비타민 C 25그램 씩을 투여 받았으며, 투여 3일 째 날, 증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3) 자궁내막 섬유종 과 양쪽 폐 색전증(폐 안에 혈전으로 인한) 의 과거 병력을 가진 43세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은 8일 동안 증상을 보여오다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로, 마른 기침, 인후염, 가벼운 숨가쁨, 설사, 기침으로 인한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녀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매일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에, 피로, 기침, 인후통, 가슴통증이 해소되었고, 전체적으로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4) ADHD의 과거력을 지닌 38세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은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동안의 피로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매일 투여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의 피로는 나아졌고 다른 특이 증상도 없었습니다.

15) 고 콜레스테롤혈증과 CVA(심혈관 발작, 뇌졸중 등)의 과거력이 있던 45세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녀는 2주 이상 기간 동안 피로, 기침, 두통, 숨가쁨, 메스꺼움, 가슴 조임, 식욕 감퇴 등의 증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녀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매일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가 끝날 무렵, 그녀는 피로, 기침, 숨가쁨 증상은 개선되었고 메스꺼움은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슴의 조임 증상은 미미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16) 특이한 과거력이 없던 41세 백인 여성은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9일 동안 피로, 마른 기침, 두통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녀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매일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가 되자 피로는 호전되었고 기침은 미미했으며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17) COVID 양성 판정을 받은, 고 콜레스테롤혈증의 병력을 가진 67세 여성은 피로, 메스꺼움, 발열, 그리고 식욕 부진을 포함한 증상을 일주일간 보여왔습니다. 이 여성 환자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매일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 열은 사라졌고 피로감도 나아졌습니다.

18) 하시모토병, 우울증의 병력을 가진 65세 여성은 2주간의 피로, 가슴 조임, 그리고 식욕저하 증상을 보여오다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 날, 가슴 조임은 해소되었고, 피로감 개선과 식욕이 회복되었습니다.

19) 천식, 빈혈, 알레르기의 병력을 지닌 31세 여성은 1주간의 피로, 마른 기침, 총혈, 후각 상실을 보여오다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 연속 IV 비타민 C 25그램을 투여 받았으며, 사흘째 되던 날, 후각이 돌아왔고, 식욕도 많이 좋아졌고, 코막힘, 피로, 기침은 개선되었습니다.

20) 신장결석의 과거력이 있던 67세 백인 여성은 발열과 피로 증상을 보이다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IV 비타민 C 25그램을 투여 받았으며, 3일째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21) 특이한 과거력이 없던 38세 백인 여성은 COVID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받기 전, 피로, 마른 기침, 인후통, 근육통, 코막힘, 두통 등의 증상을 이틀간 보였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IV 비타민 C 25그램을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 가벼운 인후염 증상과 밤사이 몇차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정도로 증상은 확연히 호전되었습니다.

22)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던 42세의 백인 남성은 COVID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 전 발열과 몸살 증세가 시작하였고 이후 코 막힘, 현기증, 밤사이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생겼고, 심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IV 비타민 C 25그램을 투여 받았습니다. 치료 3일째가 되자 그의 기분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간의 피로와 가벼운 코막힘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 문제없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실상 위의 모든 COVID 환자들은 3일 동안 25,000mg(25g)의 비타민 C를 정맥주사로 투여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상업적인 뉴스 매체에 의해 검열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OMNS가 이 릴리즈를 발행한 이유입니다.

수십 년 전 A. J. Liebling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소유한 자에게만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C 치료 정보를 대중으로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과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한 보도를 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러한 외침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COVID에 대한 비타민 요법과 관련된 수십 건의 기사가

<http://orthomolecular.org/resources/omns/index.shtml> 에 무료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스

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중국어 및 노르웨이어로 제공됩니다. 일본어 번역은 https://isom-japan.org/top_afte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양 의학은 분자 교정 의학입니다

Orthomolecular Medicine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 요법을 사용하여 질병을 퇴치합니다. 자세한 정보: <http://www.orthomolecular.org>